

월/요/광/장

장성민



지금 우리 국민은 무력감, 좌절감, 두려움이 허리를 뒤집어 정신적 혼란 상태에 휩싸여 있다.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명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한 현실 앞에 무력감을 갖고 있다. 보다 나은 현실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세상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는 점에서 좌절감을 느낀다. 이러한 생활이 내일이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이 보이지 않아 더욱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위기의 현실'이라 고 말한다. 이 위기의 상황을 누가 타개할 것인가. 그 끝은 5년간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마키 아벨라는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위기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던져 주어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떨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금 시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오늘의 현실이 위기임을 정확히 이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두려

새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여 이를 시민들 앞에 선명하게 내 보여야 한다. 그런 다음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위기적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과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9년 새해 대통령이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희망의 회복이다. 한국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기적적으로 이룬 나라라는 점을 재확인한 후, 이 점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줄여야 한다.

둘째, 비전의 모색이다. 시민들이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에너지가 일관된 방향으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궁극적인 목적지와 여기에 이르기 위한 계계적인 항로를 반드시 갖춰야 하듯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또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공동의 목표와 전략의 집합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선출된 군주가 아니라. 지나치게 선민의식과 역사적 사명감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실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 안에서 유일하게 국민 전체

로부터 지지를 받아 선출되는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목표와 압박 계획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겠지만, 너무 자신만의 업적과 유산을 남기고자 강렬한 열망에만 집착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에너지를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비전으로 연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셋째, 분열의 치유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양극화로 인해서 계급·지역·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을 공존의 틀 속에 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노력과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2009년의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발전을 이루고, 밖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면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매력적인 중형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폐자는 어려만족하고 소외된 세력을 감싸 안고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이해하는 따뜻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희망회복, 비전창출, 분열의 치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대표>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성주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밟았다. 새해가 되면 항상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또 새해인 만큼 사회·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계획한다. 그래서인지 사법부도 매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부자용과 시행착오를 염려하는 소리도 있었다. 그렇지만, 막상 시행을 해보니 국민

결론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여기엔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부천·성남지원·성남지원·안산지원·대구서부지원 등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 국선 변호사제도는 2004년 9월부터 1년 6개월간 시범시행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지방법원에서 본격 시행됐으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제도다.

민사재판방식도 변경된다. 지난 26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

새롭게 변화하는 사법부

의 참여와 이해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정착돼 가고 있어 감사할 때이다. 이는 앞으로 사법부 개혁과 함께 우리 사회 민주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은 사례로 사법부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도 사법부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살인·성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법원조정센터'를 2009년 중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고 시행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등기소 이용자들이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더라도 지역명칭만 알면 지도정보검색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기사항 요약 및 등기용어 해설 서비

스도 제공된다. 이렇듯 사법부는 올해도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국민의 참여와 협조, 관심이 있어야만 정착이 가능하다.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올해 사법부의 변화가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고등법원 판사>

백화점·할인점 카트 소독기 설치 의무화 했으면

해 소개됐다.

이 세척기는 카트에 과산화수소를 뿐만 아니라 카트에 살모넬라균을 세척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트가 많고 망가져 버려질 때까지 제대로 소독 한 번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앞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카트를 소독하고 살균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게 워낙 시간이 지나 그 필요성이 확고해졌을 때는 카트소독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한다. 아니면 최소한 카트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척하도록 규정했으면 한다.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기고



황일봉

일흔을 넘긴 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집안의 모든 창고 열쇠를 직접 관리했는데 사람들이 창고를 이용하려면 꼭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 노인은 디름 아닌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였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 세계의 시인이며, 철학자의 삶을 살았던 괴테가 노년에 왜 창고 열쇠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그건 디름 아닌 외로움 때문이었다. 괴테는 신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괴테는 신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괴테는 신구들이 자기에게 학교의 기회를 만들며 외로움을 달랬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

다. 그런 문화는 스스로 좋아서 즐겁게 해야만 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웃 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웃 사람을 아랫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 있을까. 그 또한 아니다. 그런 인성은 세살 베를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명속답처럼 어렸을 적부터 특히 청소년기에 길러져야 한다.

남구가 다양한 효사랑 시작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교육감 인정 청소년 인성교육교재인 '효사랑 생활'을 발간해 전국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일

자녀 인성교육은 '효사랑' 교과서로

아 왔다. 그래서 최소한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꾼이 괴테처럼 괴테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지 않아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외로움에, 소외감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소외감을 그 외로움을 누가 달랠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가족과 자녀들에게만 노인들의 노후를 맡기고 부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광주시 남구가 지난 6년 동안 역점적으로, 또한 일관되게 추진해온 효사랑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었고, 또한 지속된 것이다. 물질 앞에서 효사랑 앞에서 노인공의식과 이웃 간의 사랑이라 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과 아랫사람을 사랑해 야한다고 강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

선학교 선생님들이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시나브로 효라는 것의 실천은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며 매우 쉽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언급했던 노년의 괴테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과 싸우면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노인과 상대하거나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中最 중요한 것 중의 하나다.

'효사랑 생활' 교과사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태도가 왜 짓지 않은지, 이웃과 가족, 이웃 어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남구가 발행해 보급하고 있는 '효사랑 생활' 교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광주 남구청장>

어린이 장난감 설명서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해주시겠다며 설명서를 받아들었다. 잠시 후 작은 글자 때문에 시아버지는 돌보기를 들고 설명서를 보고 계셨고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괜이가 완성되었다.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였고 왜 그렇게 작은 글자와 이해하기 힘든 설명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차라리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려면 아니면 아이들이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만화 설명서 또한 아이들 수준에 맞추었으면 한다. ▲정혜진·순천시 조례동

시설

새해 날아든 '장애인 등반가' 김홍빈씨 낭보

새해 벽두부터 낭보가 날아들었다. 장애인 등반가 김홍빈씨가 지난 2일 7대륙 최고봉 등정의 마지막 관문인 남극 '빈슨 매시프(4,897m) 등정에 성공한 것이다. 더구나 김씨의 남극 최고봉 등정이 광주일보의 후원에 의해 이뤄졌고, 본사 사회1부장인 정후식 대원이 김씨와 함께 남극 정상에 섰다는 점에서

성공하면서 도전 12년만에 장애인 최초의 7대륙 최고봉 완등이라는 신화를 썼다.

새해 초 김씨가 전해준 낭보는 죄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좌절을 딛고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은 극한의 난관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진실을 몸으로 보여 준 것이다. '장애는 불행한 게 아니라 단지 불편한 뿐'이라는 금언을 직접 실천한 경우이기도 하다.

광주일보가 광주 출신인 김씨의 남극 최고봉 등정을 후원하고 그의 손발이 되어 대원을 파견한 것은 바로 지역민과 함께 해운 광주일보 57년 역사와 달라 있다. 광주일보는 1952년 창사 이후 지역 산악인들의 도전사에 항상 함께 있었다. 지역 언론이 남극 대륙에 취재 진을 파견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김홍빈씨의 도전 성공에 다시 한번 갈채를 보낸다.

여야, 언제까지 국회 표류시킬 것인가

국회 사무처가 지난 주말을 기해 민주당과 민노당이 접거나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흘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연초 정국이 급속히 범각되고 있다.

열흘째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고 한나라당과 협의 가능한 법안 심사 착수하겠다"고 재인했다. 하지만 그는 유럽 벨그리즈,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남미 아동과, 북미 매킨리, 호주 코이어스코, 아시아 에베레스트를 차례로 등정했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남극 최고봉 빈슨 매시프 등장에

그러나 장애는 그의 집념을 막지 못했다. 1997년 7대륙 최고봉 완등 도전에 나선 그는 유럽 벨그리즈,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남미 아동과, 북미 매킨리, 호주 코이어스코, 아시아 에베레스트를 차례로 등정했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남극 최고봉 빈슨 매시프 등장에

그리고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소신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소신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여야가 더 이상 주춤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파국이라는 죄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파국은 여야 모두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 편에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無等鼓

1582년 서양사는 물론, 세계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대변화의 서막이 열렸다. 80세 고령의 교황 그雷고리우스 13세는 새로운 달력의 시행을 명령했다. 이후 400여년동안 인류의 시간을 지배한 그雷고리우스의 탄생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는 법. 영국은 그雷고리우스를 기록했다. 1905년 10월 4일, 바로 다음날인 10월 5일을 10월 15일로 조정해 시간과 달력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고리우스의 시험으로 유럽인들은 그雷고리우스를 인정하고, 그雷고리우스를 기록했다. 그雷고리우스는 청회색을 띠고 귀환한 금속원자 세슘의 진동주기를 기본으로 한 '원자초'를 새로운 시간 단위

로 채택했다.

2009년 새해를 맞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1초의 선물'이 주어졌다. 세슘 진동주기로 1초에 걸쳐 1초씩 늦어지는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도입된 '윤초(閏秒)' 때문이다. 비록 1초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것은 아니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신교국은 윤초(閏秒)를 새로운 시간 단위로 채택했다. 2009년 새해를 맞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1초의 선물'이 주어졌다. 세슘 진동주기로 1초에 걸쳐 1초씩 늦어지는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도입된 '윤초(閏秒)' 때문이다. 비록 1초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것은 아니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신교국은 윤초(閏秒)를 새로운 시간 단위로 채택했다.

/오주승 신설위원 jsoh@kwangju.co.kr

국가와 러시아 등 그리스정교 국가는 외면했다. 종교적 혼란이 극심해 독일은 윤리우스와 그雷고리우스를 허용했다. 그雷고리우스의 시행이 유태교의 종교지도를 그대로 반증한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는 법. 영국은 그雷고리우스를 기록했다. 1905년 10월 4일, 바로 다음날인 10월 5일을 10월 15일로 조정해 시간과 달력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고리우스의 시험으로 유럽인들은 그雷고리우스를 인정하고, 그雷고리우스를 기록했다. 그雷고리우스는 청회색을 띠고 귀환한 금속원자